1.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LG이노텍에 3월 2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선임으로 들어왔구요, 담당업무는 아직 배정되진 않았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4월부터 팀의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검출 장비 개발 관련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2. 취뽀 에피소드

저는 딱히 취뽀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마음 고생이 없었던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job을 알아보던 중에 하이브레인넷에서 LG이노텍의 채용 공고를 보고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라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공고를 읽어보니 제가 연구한 내용과 약간 관련이 있는 듯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만 합격하였습니다. 이건 운명인갑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3. 사실 취업 시장 분위기나 각 기업들 특징 같은건 잘 모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비전이라던지 회사 소개 같은거 보통 읽어보고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안했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여기 말곤 다 떨어져서... 입니다. LG 강점, 장점 같은 것도 다른 회사를 안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

4. 돈 벌어서 결혼 자금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무엇보다 서울로 다시 입성하고 싶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난한 여행 아니라 좀 넉넉하게 가보고 싶기도 하구요.

5. 너무 세뇌되지 말고, 너무 충성하지 말고, MZ세대 답게 받은 만큼 일하고 일한만큼 받고, 많이 배운 다음에 떠납시다.